

“문화 이해하니 마음도 통했어요”

2004 한·일 공동 미래프로젝트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의 우정만들기 현장



① 동해의 해신을 맞아들이기 위해 세워진 와타즈미 신사를 찾아 양국의 긴밀했던 문화교류 역사를 생각해 보는 청소년들.
② 대마도 일정 마지막 날, 4박5일간의 한국행에 대해 한국 청소년들과 합류한 일본 청소년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③ 태풍 '매미'로 카미자카 전망대 등을 찾지 못한 한국 청소년들이 대마도 해변가에서 즐거워 하고 있다.
④ 수원포교당에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연등을 만드는 모습. ⑤ 환영행사로 수원포교당에서 펼쳐진 아단법석의 환경공연.

정·수원 천천고 1년)

“전 황량하게 세워져 있는 최익현순국비를 보며, 구국항일투쟁에 앞장서다 이곳 대마도에서 유배당해 끝내 목숨을 잃은 최익현 선생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았어요.” (홍재현·정주 올랑중 2년)

이틀날 강하게 불어 닥친 폭풍 '매미'의 영향으로 예정된 카미자카 전망대 및 찻집 등 대마도 관광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청소년들은 귀국하는 순간까지도 한국전망대, 와타즈미신사 등을 찾아 나서며, 일본문화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한국의 숨결을 느끼려 노력했다.

20일, 4박 5일간의 한국행에 대해 한국 친구들의 마지막 일정에 합류한 일본 측 청소년들 또한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일본역사 속 한국모습을 찾아 두 나라의 교류역사라는 퍼즐을 하나, 둘 끼어 맞추고 있었다.

처음 한국을 찾아 가슴이 떨린다는 가와카미 요시사(대마고 2년)부터 내년 한국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 한다는 나카지마 쇼

이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의 탑으로 완성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탑 앞에 서서 간절한 소망을 불어넣는 순백의 마음. 이 모든 과정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 보다 활발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활동을 소망하며 만들어가는 하나의 발원점 같았다.

그 발원을 소중히 가슴 속에 새기고 다음날 수원포교당으로 향한 청소년들. 이곳에서 타악공연단 '아단법석'의 환경공연을 관람하고, 연등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보다 끈끈한 우정을 나눴다.

한국 청소년들은 능숙한 솜씨로 연등을 꼬아가며 일본 친구들을 도왔고, 일본 청소년들 또한 "아리가또(고마워)"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해맑은 웃음을 내었다.

“한국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뜻 깊고 재미 있었어요. 특히 새벽예불 체험은 일본에서의 예배방식과 많이 달라 힘들었지만, 스님의 묵묵소리에 맞춰 엄복도 하고 절도 하면서도 가깝지만 참 많이 다른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생각해봤어요.” (가와사키 코세이 대마고 2년)

“대마도 탐방을 통해서도 오래된 양국의 교류역사를, 일본 친구들과 함께한 국내 프로그램에서는 맡은 안 통했지만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박훈식 수원대 3년)

짧은 일정이었지만 어디든 무엇이든 함께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노력한 아이들. 보다 성숙한 만남과 교류를 기약하며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교환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다.

“꼭 연락해.” “나 있으면 안돼.”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안타까운 인사말들. 이별이란 항상 안타깝고 아쉬운 법이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다. 그동안 서로가 함께 쌓은 우정은 잊으려고 해서 잊혀질 것도 멀리 떨어져있다고 해서 무너질 것도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6백년전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글·사진=김은경 기자

韓·日, 중·고·대학생 90여명 양국 역사·문화 체험 대마도 한국유적 답사·법주사 참배 통해 우정 다져

명적 6개조로 나뉜 조상의 통솔아래 조선통신사비와 대마도역사 자료관, 구한말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덕혜옹주결혼기념비, 최익현순국비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누구 하나 현장의 의미를 부여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어떠한 역사적 고증과 사료보다도 더 정확하고 투명한 눈으로 그 현장의 의미를 읽어내고 있었다.

“역사자료관을 방문하고 조선통신사가 형식적인 외교사절단이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12회나 일본을 방문하며 양국의 학문, 예술, 문화교류를 위해 힘쓴 문화사절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효

우코(동지시대 졸업)까지. 또래의 한국 친구들과 금세 친해진 일본 청소년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보는 법주사와 수원포교당, 서울 인사동 등지를 찾았다.

법주사에 도착해 새벽예불부터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세는 다소 어색했지만, 결근질로 옆의 친구들과 합장하는 모습과 절하는 모습 등을 살짝살짝 보며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은 정겹고 늘름하기만 했다. 이어 진행된 돌탑쌓기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뽑았을 만큼, 양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어 준

1428년 조선과 일본 양국간의 평화증진을 위해 대마도에 파견됐던 조선통신사, 그리고 일본국왕사. 그들의 후예들이 600여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2004년, 옛 선조들의 역사문화현장 답사를 통해, 양국의 긴밀했던 역사를 이해하고 새로운 청소년 교류의 물꼬를 댔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와 조계종 복지법인 아름다운 세상이 진행하는 2004 한·일 공동 미래프로젝트 ‘조선통신사와 일본국왕사의 우정만들기’가 바로 그것.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대마도를 비롯해 보은 법주사, 수원포교당 등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한국 중·고·대학생 60여명과 일본 고·대학생 30여명이 참가해, 서로의 역사현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일본친구들에 앞서 먼저 대마도를 찾은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속의 한국역사’에 관한 강의를 필두로 8월18~20일 2박 3일간의 일본문화체험 및 일본 속 한국역사탐방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10여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30-0705

10월 20일 출발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 650,000원 (중국비까지, 가이드 기사팁 불포함) 10월 10일 마감

일자	주요 일정
20일	09:35 항공편으로 인천출발 / 북경도착 북경 최대 사찰 답사 순례 야간 열차로 낙양으로 이동
21일	소림사, 탑림, 백마사, 용문석굴 순례
22일	항공편으로 북경 이동 천안문, 자금성 및 왕부정 거리 관광
23일	만리장성 관광, 옹화궁(라마교사원), 와불사
24일	천진으로 이동 천진페리 승선 / 출발
25일	인천 도착 해산

오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계사, 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 (운강석굴, 와암사, 연통사) ₩ 6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 불교 성지 순례

-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85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85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80만원
-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80만원
-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7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